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서일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부터 함께 생활한 울리안 청년이 다른 일정을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안학교 등록을 위한 설명회가 24일(목) 오후 4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헌금계좌 변경 안내
신협 131-021-578132 사랑방교회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2 호

2022년 3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육제와 사순절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四旬節)에 속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四-넉 사, 旬-열흘 순, 節-마디 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킵니다.

아래 그림은 사순절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The Battle between Lent and Carnival 출처:<https://blog.daum.net/gold9055/15019677>



1559년에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1528-1569, 네델란드)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번역하면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육제(謝肉祭)는 사레할 사, 고기 육, 제사 제의 한자 음과 뜻

선교의 섬김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니발'로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고기를 버림이라는 뜻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금식 기간을 앞두고 벌였던 자유의 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니발 축제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광대가 흰옷과 검정옷의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어두운 색채를 띠고 있고 왼쪽은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순절과 카톨릭을 표현했으며 왼쪽은 사육제와 개신교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사순절은 금욕과 자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오른쪽 위의 성당을 들어간 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사육제를 표현한 모습은 커다란 술통 위에 고기꼬치를 든 사람, 악기와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 혹은 도와주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사육제와 사순절을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하는 금욕을 지켜야하는 의무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무로 자선을 하지만 성당을 나온 후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사육제는 자유와 축제의 모습을 보이지만 방탕과 약한자를 돌보는 자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자선과 봉사, 금욕의 안 좋은 모습과 금욕의 부담에서 해방되고자 자유와 축제로 방탕하게 즐기는 모습은 사순절을 의미보다는 금욕에 대한 해소에 더 초점을 둔 것 같아보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게하는 그림입니다. 사순절을 의례 행사로 금욕의 행위로만 지내는지, 또는 금욕의 기간 앞뒤에 해방과 축제를 즐겨 그 본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 말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6장 41-71절
제목 : 생명의 빵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자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장미숙 권사
찬송 : 539 453 524

관찰]

41-59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60-71 소수의 제자들이 남음.

해석]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2.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3.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다.

적용]

1.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자.
2. 성서일기와 말씀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자.
3.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참된 것을 구하자.

사랑방공동체에서 산 6개월

2021년 9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과 공동체에 살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4일간 호텔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격리 호텔로 안내해 준 불친절한 경찰 때문에 저는 환영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희망을 준 것은 정재훈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나게 따뜻한 환영 이메일이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김포시까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와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두가 저를 얼마나 환영하는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머물 숙소로 도착했을 때 이미 가구와 공동체 식구들이 제공하는 조리기구 및 맛있는 간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 주말마다 공동체 식구들 집으로 초대받아 받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딱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공동체에서 함께 고구마를 캔 일입니다. 공동체 막내인 권하민(저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쳐주기도 했던 분)이 공동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나중에 고구마를 먹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사랑방공동체라는 대가족의 한 식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아무도 제가 무엇을 되돌려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사심 없는 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사랑방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너무 슬프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은 제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집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집을 찾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한국의 새로운 집으로 말입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4-16 인도자
3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57 : 15 인도자

88, 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15 : 11 - 32 설교자
270 공동체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묻다” 권재만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72 설교자
다함께

516(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동인 윤경옥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선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겸손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묻다

집을 나간 아들이 멈춰 생각하며 돌아왔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납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를 치다가 생각해보니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밭치에서 보고 뛰어옵니다. 그를 안고 환영합니다. 그를 위해 마을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는 화가 나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기도의 문. 아들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자기 몫을 요구하였고 다른 한 명은 교만함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시며 용납해 주십니다.

잠시 멈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읍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걸어온 길을 봅시다. 이 길이 참된 길인지 봅시다. 곁길로 빠져 진흙탕에 빠졌는지 잘못된 길로 빠졌는지 확인합시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단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안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으시며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3월이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꾸러기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코로나19와 매우 힘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4명이 순차적으로 걸리고, 가족들도 걸려서 월요일에 두명 나왔다가 화, 수, 목은 자체 휴교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에는 3명이 나와서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3명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얼싸 안고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각자 좋아하는 걸 큰 블록과 의자를 사용해서 멋지게 만들며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더 세밀하고 꼼꼼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말을 온전히 더 들어 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 주는 놀면서 개에 관심이 생겨서 유도로 개를 만들고, 멋진 개집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며 원하는 색깔에 종이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며 다양한 개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에 학교에 있는 개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개의 종류, 특징 등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톡톡 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자기 만의 개집을 만들어 서로 매우 뿌듯해하고 만족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지난 주 월~수요일에 어린이학교에서는 개학여행 일정을 가졌습니다. 민감한 시기여서 외부로 떠나지는 않고, 등하교 하면서 특별한 일정을 함께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올해 학사력 살펴보기를 시작으로 공동체 놀이, 반별로 특색 있는 라면 끓여 먹기를 하였습니다. 권재만 선생님이 진행하신 공동체 놀이는 친구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몸으로 하는 다양한 놀이와 머리를 써서 맞혀야 하는 퀴즈 시간까지 박진감이 넘쳤구요. 친구들이 특별히 기대한 라면 끓여 먹기는 짜장라면, 해물라면, 떡만두라면, 크림소스라면 중에 반별 뽑기로 정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움과 화요일에는 특별 간식바 지원을 걸고 반별자랑대회와 피구를 했습니다. 반

별자랑대회에서는 각 반의 특색을 살린 구호와 장기자랑이 의외의 긴장감과 재미를 안겨주었고, 피구는 영성하고 싱겁게 끝나나 싶다가 막판 따라잡기가 펼쳐지기도 했네요.

수요일에는 '어메이징 파크'로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어메이징 파크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다리들과 산책 코스, 그리고 과학 기구들이 있어서 골고루 다 해보고 질라인 체험을 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공원에서 계속 이것저것 하느라 운동량이 대폭 늘어난 하루를 보내고 목요일 하루는 잘 쉬었습니다.

금요일에 하기로 했던 임원 선거는 코로나 여파로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랑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곧 회복도 되고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이제 봄이 왔구나~" 하다가도 다시금 움츠러들게 되는 환절기입니다. 멋쟁이들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계절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새학기를 시작할 때 늘하는 삼정생활 시험과 학년별 새천년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 있었습니다. '삼정생활'은 멋쟁이학교의 중요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좌(正坐), 정직(正直), 정도(正道), 정돈(整頓), 정리(整理), 정가(整暇), 정성(精誠), 정신(精神), 정진(精進)'의 내용들을 평소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암기하고 삶의 자세를 바로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하며 하는 새천년 건강체조를 학년별로 연습하고 보여주는 경연대회도 있었습니다. 최고 학년인 6학년이 능숙하게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며 1등을 하였고 의상과 힘찬 기합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 5학년이 2등을 하였습니다. 섬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동작을 보여준 4학년은 3등을, 체조의 정석을 보여주고자 했던 3학년과, 선글라스와 모자로 큰 웃음 준 2학년, 서툴지만 귀여웠던 1학년은 참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출된 멋쟁이학교 회장 이현준, 부회장 이나영와 의논하여 새 회장단을 구성했습니다. 총무 박인혁, 서기 김재인, 회계 김주은입니다. 앞으로도 교사들과 학생 전체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잘 모아 멋쟁이학교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기대합니다~!

< 교사 : 박예나 >

함께 살기 때문에

3월. 새로운 달을 시작 한지로 벌써 20일이 지났네요. 각 학교의 새내기들이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생활한 지 3주가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쟁이학교는 입학과 더불어 개강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개강 여행은 그 어떤 여행보다 신입생들에게 중요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1학년 신입생 담임인 저에게도 당연히 이번 개강 여행은 아주 중요한 여행이었지요. 신입생들 살피고 돕는 것뿐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단추이니깐요.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집 셋째가 혼자 집에 남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멋쟁이 교사로 여행을 가야 하고 오빠 언니도 멋쟁이 학교 학생으로 여행을 가니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미리 예상한 일이라 발 빠르게 친정엄마에게 양해를 구했고 한 주간 동안 친정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맘이 놓이긴 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학교 입학 및 개학식에 아영이가 등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학교로는 아주 중요한 기간에 등교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을 안 어린이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구인 이현숙 선생님께서 아영이를 여행 기간동안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내심 전화를 끊고 불편한 마음을 다잡으며 "위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런 게 위탁이구나.. 나의 형편을 맡기는 것. 배려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잘 받을 줄 알아야 잘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무사히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날. 아영이는 집으로 오지 않고, 선생님 댁에서 하루를 더 자기로 했습니다. 집보다 더 좋구나 뭐라나...내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선뜻 아이를 맡아주시고, 침대보까지 세탁해주시고 따순 텐트까지 쳐주시며 돌봐주신 이현숙 선생님 가정을 비롯하여 혼자 있는 아이를 위로해주시려 이것저것 챙겨주신 공동 식구들의 사랑의 섬김.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되나 봅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빌립보서 32장 8~12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모두 자국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민들레학교 교사초빙, 학생모집 및 민들레대학 운영위해

(2)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 공간디자인 및 작업

(3) 선교사, 목회자 지원 사역을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오미크론 변이로 염려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만 3천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지체들과 무림리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코로나의 큰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 식구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애쓴 한 주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을 맞아 밭에 거름을 뿌리고 작물을 심기 위한 작업을 멋쟁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새싹이 잘 올라오도록 화단 정리도 하고 가지치기도 했으며, 트럼블린을 비롯한 학교의 기구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루 하루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순절과 새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